“코로나19 팬데믹, ‘불교경제’ 가는 단계”

〈불교경제학〉 펴낸 클레어 브라운 인터뷰 화제

박정현 객원기자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 등 인간 사회의 경제학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클레어 브라운(Clair Brown)〈사진〉이 최근 펴낸 저서 〈불교경제학: 암울한 과학에 대한 계몽적 접근〉은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클레어 브라운은 9월 6일 책 발간 기념 ‘하버드 폴리티컬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불교의 평등사상과 인간과 환경 간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가르침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 ‘불교 경제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클레어 브라운의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경제학’과 ‘불교 철학’의 접목이 생경하다. 어떻게 처음 두 학문을 결합할 생각을 했나. 또 저서 ‘불교경제학’을 펴낸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미국 사회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규제 완화는 단지 시장의 규칙을 ‘정부’로부터 ‘대기업’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 의약품 ·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대기업이 거대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 경제 구조 탓에 역설적이게도 경제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불교신자로서 ‘상호의존’과 같은 단순한 불교적 개념으로 경제학 발전에 일조하기로 결정했다.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이 ‘불교 경제학’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불교 경제학은 신자유주의나 자유시장 모델이 공동선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의 ‘선(善)’을 생산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지구(인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 우리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인류의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이 기괴한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자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확실히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이 더 이상 ‘낮은 세금’을 찾아 다른 국가를 누비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금 하한선’ 설정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이다.

△ 우리는 기후위기에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자초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간과 환경 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후과학자들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10년에서 20년 안에 제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부유한 국가는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대체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개발 과정에서 더러운 화석 연료 에너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과 개발도상국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호적 재생 경제와 같다.

△점점 더 현대인들의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현대 경제의 근본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나.

물질주의의 폐해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가지지 않은 채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산다면 그 폐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덜 일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일과 가족이 더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재택 근무가 보편화되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탐구하는 것. 이것은 ‘불교 경제’로 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中, 달라이라마 사진 금지 및 단속 나서

100명 이상 체포, 시진핑 사진 배포해

최근 중국당국이 티베트 자치구 등지에 거주하는 티베트 인의 달라이라마에 대한 신심을 단속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과 ‘ANI 뉴스’ 등의 외신들은 중국이 순회단속으로 티베트 인들이 체포됐고,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현지 소식통과, 인도에 망명중인 티베트인 공동체들의 정보를 인용하여 8월 25일 단속이 시작된 이래 이미 100여 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RFA에 정보를 제공한 현지 소식통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주말을 이용해 공안이 급습했다. 열아홉 분의 스님과 40명의 일반인들이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소지했거나, 외국과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이 이뤄진 곳은 칭하이성의 쎄르슐 지구와 쓰촨성의 까르제 지구로 두 지구 모두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소신공양, 혹은 시위가 있었던 곳이다.

소식통은 “공안 당국은 가옥의 청소와 소독을 명목으로 노인들이 사는 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압수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진을 배포하고 거실이나 불단 가까이에 걸어 둘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18세 이상의 청장년층의 경우 소지한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있다. 중국 밖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이나 외국인과 연락한 내용이 발각되면 모두 지역사회의 정보를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공안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시 단속으로 티베트인들이 체포된 쎄르슐 지구와 까르제 지구. 사진출처=RFA

한편 까르제 지구의 자왕뽀 사원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정치 및 애국교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RFA는 “현지의 제보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스님들은 매일 20명씩 모여 공안에 소재를 신고하고 정치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왕뽀 사원의 스님들은 이미 2012년, 사찰에 중국 국기를 게양하라는 공안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한 스님이 고문후유증으로 입적했다.

현지 소식통은 “자왕뽀 사원 뿐만 아니라 여러 사찰, 직장, 학교 등에서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티베트 인들의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가업 사찰 문제점에 일본사회 ‘들썩’

야후재팬, 일본 승단 문제 특집 보도

원치 않는 출가로 인한 자질 부족인 승려 많아

비구승단이 주가 되어온 한국불교와 달리 일본불교는 출가자가 결혼하여 가업으로서 사찰을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대를 잇는 사찰과 승단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가자의 자질 부족이나,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출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 5일, 일본의 주간지 ‘토요 게이자이(東洋經濟)’와 ‘야후재팬 뉴스’는 승단 내부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특별보도했다.

몇 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모 사찰의 장녀로 태어난 S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승단의 문제나 사찰의 내부 실태가 공개되면 많은 신도들이 환멸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고백했다. S씨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스님들은 인격이 완성된 사람으로 보이고, 사찰은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이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의 집안인 사찰을 예시로 내부사정을 이야기했다.

현재 일본불교에서는 출가자라는 지위가 가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사찰이나 토지, 신도 등이 사유재산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절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업을 잇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드물다. S씨는 “특히 나와 같이 자매로만 자식이 없는 사찰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도 거의 자유가 없다고 전했다. 실제 S씨는 “스님인 아버지와 조부는 물론 신도들에게도 사찰을 잇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부모님은 “진로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종립대학에 갈 것을 은근히 권유하거나 사중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등 다른 진로가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출가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며, 심지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사찰의 후계를 위해 부모의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고백했다.

S씨와 같은 종립대학에 진학한 다른 여성 후계자들은 “아직까지 사찰은 남성이 잇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여성만 있는 사찰의 경우 종립대학에 진학하면 ‘다른 사찰의 차남이나 삼남을 사위로 데려오라’는 말을 부모나 신도에게서 듣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찰을 이어야한다는 정신적 폭력으로 고통 받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이런 압박을 받는 젊은 후계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가자의 자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전했다. 사찰, 혹은 같은 종단이라는 좁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또래와의 접점이 부족하고, 사찰을 이어야한다는 부담감이 강한 탓이다. S씨와 같이 사찰의 후계자로 성장한 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안에서의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절의 일은 잘 모르겠다’며 공감을 하지 못하는 데서 큰 고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환경 속 절의 주지스님들의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했다. 또한 스님이라는 신분상 자신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이들은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테러리스트’ 위라투 석방

석방 뒤 병원 치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 군부가 ‘불교계 빈라덴’이라고도 불리는 극우불교성향 승려 위라투(53 · Wirathu)〈사진〉를 석방했다고 ‘BB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위라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취하한 후 그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라투는 석방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건강상의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라투는 과거 2012년 보궐선거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지지 세력이었으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이견으로 선거 직전 수치 여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후 위라투는 로힝야족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고, 2017년 1년 간 설교 금지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위라투는 설교 금지령이 해제된 후에도 수치 여사와 로힝야족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다는 혐의로 구금된 바 있다.

미국의 타임스는 2015년 11월 위라투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불교 테러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